

# 5·18 기념식서 장애인·임산부 등 희생자 재조명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제8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와 임산부 사망자 묘역 등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1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38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이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김경철·최미애·윤상원·박관현 열사와 이창현 행방불명자 묘역을 유족과 함께 참배한다.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김경철 씨는 어릴 때 추락사고로

려간 그는 하루만인 5월19일 숨을 거뒀다.

김씨는 민주묘지 1묘역 첫번째 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최미애 씨는 5월21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다.

이 때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이뤄졌으며, 최 씨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다. 팔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국가보훈처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38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이낙연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김경철(사진 위 왼쪽부터)·최미애·윤상원·박관현(사진 아래 왼쪽) 열사와 이창현 행방불명자 묘소를 유족과 함께 참배한다고 16일 밝혔다.

## 오늘 국립5·18민주묘지서 38주년 기념식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나이로 숨진 이창현 군 시신조차 못찾아 5·18행방불명자로 남아

인해 청각을 잃었다. 이로 인해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는 결혼 뒤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다.

1980년 5월18일 그는 서울에서 온 차남을 배웅한 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광주 시내 중심가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금남로 지하상가 공사현장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혔다. 장애인증을 보여주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계엄군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적십자병원으로 실

백속의 아이는 태동이 느껴져 어머니는 급하게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사고현장으로 달려오는 구급차는 없었다.

최 씨의 가족들은 숨진 딸의 시신을 손수레에 싣고 장례를 치렀다.

5·18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5월27일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는 항쟁 지도부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그는 계엄군의 진압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도 도청에 남아 '훗날

역사가 우리를 기억해 줄 것이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뒤 총탄에 맞아 숨졌다.

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그해 5월16일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올라 시위의 의미가 담긴 연설을 한 뒤 수배가 내려져 도주 생활을 했다.

1982년 4월 내란중요인무종사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은 그는 50일간의 옥중 단식까지 벌이며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끝내 사망했다.

지나해 37주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 이름이 등장해 그의 삶이 다시 조명됐다.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숨진 이창현 군은 38년이 되도록 시신조차 찾지 못한 5·18 행방불명자로 남아있다.

1994년 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시신이 없어 민주묘지 행불자 묘역에 묘비만 세웠다.

묘비 뒷면에는 '내 아들 창현이를 아버지 가슴에 묻는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 김꽃비·김채희 38주년 기념식 공동진행

“영화와 드라마가 결합한 시네라마 형식 진행”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김꽃비와 김채희가 38주기 기념식을 진행한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8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사회자로 영화배우 김꽃비와 김채희가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두 배우는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 추모공연부터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

한 행진곡' 제작까지 50여분동안 호흡을 맞춰 행사를 이끌어 간다.

또 기념식 중간에 공연되는 시네라마 형식의 공연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할 것으로 알려졌다.

씨네라마 작품은 5·18 당시 행방불명된 초등학생 이들을 38년동안 찾아 다니는 아버지를 조명하면서 행불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

두 배우와 38주기 기념식의 인연은 5·18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에 출연하면서

맺어졌다.

김꽃비는 영화에서 주인공 희수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으며 김채희는 희수의 어머니인 명희의 과거의 모습으로 출연해 로맨스부터 절절한 모성애까지 소화했다.

영화는 1980년 5월, 이철수의 의문사 이후로 시간이 멈춰있는 엄파명희(김부선)를 이해할 수 없었던 딸 희수가 진실을 마주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채희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열사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의미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기념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의 기념식 진행은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주로 했지만 이번 기념식은 영화와 드라마가 결합한 시네라마 형식



배우 김채희(왼쪽)와 김꽃비(오른쪽)가 5·18 38주년 기념식 공동진행자로 나선다. 두 배우가 5·18 관련 영화에 출연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채희는 "이번 기념식은 영화와 드라마가 결합한 시네라마 형식"이라고 말했다.

지역광고판매장소 정문역빌딩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